

# 안티연고전(가) 연세대 준비 모임

일시: 2002. 9. 3. (화)

발신: 연세교육행동위원회

수신: 연고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연세인

안티 연고제 연세 모임이 처음으로 모이는 거죠?

반갑습니다. 이곳에서는 안티 연고전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연고제를 축제로서 다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안티 연고제 모임 고려대 모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휘휘 저어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우리 그럼 이제 출발하여.

## ■논의안건들\*~\*

>>안티연고전 연세 모임을 제안하면서

freeduch / amy komo

>>안티 연고전 고대 모임을 둘러보면서

>>안티 연고전 연세 모임의 준비 상황 공유

충원 / 해당원 / 제로니카 / 연동 / (연세)

>>안티 연고전 연세 모임의 쟁점

-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 열리도록.

>>안티 연고전 연세 모임이 모할까?

\* 준비한다. 못한다 거부한다.

>>일정 공유

\* 나이기 라틴.

연고제

연고제 / 마차맨.

금 제국 7:00

연고.



# Anti연고전 연세대 모임(가)을 제안합니다.

연세교육행동위원회에서 드립니다.

## 0. 비상(非常)하라 연세여.

2학기 최대의 행사로 꼽히는 연고제. 한국 사회 양대 최고 명문 사학이라는 연세대와 고려대의 축제로서, 주되게는 서로의 교류와 친목을 다지는 행사라는 연고제에서 주되게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거리거리에 내걸린 현수막들 “지축을 박차고, 자유와 진리의 합성으로 비상하라 연세여.” 비상스럽게 움직이는 아카라카 응원단. 치어리더의 치마에도 어김없는 비상이. 연대의 운동선수들은 건장하고 굳세게 우리들의 마초로 친구하자고 하는 연고체육제에는 “연세는 하나다” 라며 이루어지는 자부심 123%의 응원이 고대와의 선긋기를 통해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신촌과 안암의 골목골목 또한 비상이 걸린다. 지축을 박차 응원을 뜨면서 자유와 진리의 합성으로 FM을 목청껏 외치는 기차들이 비상하고 있으므로.

비상스러운 이 시기에 그렇다면 상식적인 것은 무엇인가.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시공간— 특권의식과 남성성, 그리고 비장애인 중심성에 기반한 이 축제에서 그러나 다시 전복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 전복되어야 할 가치들에게 가까이 비상임을 선포하자.

## 1. 연고제에 대하여

연고제는 일년에 한 번 연세대와 고려대의 만남의 장이 되는 축제의 공간이다. 하지만, 연고제는 일상에서 동떨어진 공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더 이상 새로운 축제로서 존재하지도 않는다. 연고제는 보다 넓게는 대학 문화와 동떨어져서 이야기될 수 없는 것이다.

연세의 특징은 자유로움으로 이야기된다. 이러한 분위기는 연세의 세련된 이미지와 더불어 서로의 의사가 존중되고 조화롭게 구성되는 대학으로서 일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나 가뜩이나 공동체 문화가 소실되어 가고 있는 연세대에서 서로 다른 개인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연고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연고제 기간의 모습은 이와 사뭇 다르다. 실제 연고제 기간의 문화는 개인의 존중이 바탕되는 공동체 문화가 아니라 응원으로 표상되는 획일적이고 폭력적인 문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문제가 된다. 특별히, 연고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요근래의 연고제는 연고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 연고전의 대 사회적인 의미는 희석되고 연세대와 고려대, 양 학교의 다양한 교류의 축제의 의미는 축소된 채 체육제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학우들은 응원중심으로 연고제기간 내내를 보내게 된다는 것이다. 자치단위 혹은 학회에서 기획하는 것은 운동장의 어느 곳에서 응원을 할 것인가. 어느 자리가 더 재미있게 응원할 수 있을 것인가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참여를 넘어서 스스로가 구성하고 만들어 가는 모습은 찾기 힘들다. 이는 다만 연세대, 고려대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대학문화가 가지고 있는 아마추어리즘의 소실로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밥상 차려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밥상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지금 연세의 모습은 대학인의 정체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다만 연세인으로서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집단주의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개인과 소수자에 대한 필연적인 배제를 낳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전개된다.

## 2. 연고전, 집단 엘리트 의식에 기인한—

연고제 기간 내내 연세인은 연세인으로서 고대인은 고대인으로서 자신을 재확인하고 그를 긍정하게 된다. 과도히 설정된 경쟁 구도 속에서 구성된 정체성과 자부심은 학교에 대한 순수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학벌에 기댄 엘리트 의식에서 비롯된다.

연고전은 연대와 고대라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대학 서열로 인해 축제가 아닌 양교의 학벌 서열을 재확인하는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연고제 내내 고대생은 자신이 고대생임을, 연대생은 자신이 연대생임을 재확인하고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그들이 갖고 가는 자부심이라는 것은 학교에 대한 순수한 열정에서 발현된 것이 아닌 학벌에 기댄 엘리트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

엘리트 의식은 다른 집단에 대한 차별의 기제 혹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 도구가 될 수 있기에 비판되어야 한다. 연고제를 통해 소위 명문대라는 명예의식을 가지며 서로 엘리트 집단의식을 공고히 하게 된다, 아마 연대와 고대라는 학벌로 인해 연고제가 지금껏 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연고제 동안 학생들은 경기장에서뿐만 아니라 잠실과 신촌 혹은 안암을 점거한 채 그들만의 축제를 즐기려한다. 이제는 연고제라는 것이 대사회적 의미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양교는 거리를 점거한 채, 때로는 지하철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응원을 서슴지 않는다. 그 속에 질서와 배려는 없다. 이러한 행태는 비단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문제로 축소될 수는 없다. 물론 그 또한 중요하지만, 양교 학생들이 시민들의 불편을 무시한 채, 주변 상권의 불만을 무시한 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저에는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엘리트 의식이 자리잡고 있기에 더욱 비판이 된다.

## 3. 연고제, 그 안에 소비적 대학주체로서의 모습

우리 사회 내에서 사회 차별을 낳으며 정의적 집단주의의 근거가 되는 학벌과 그리고 그에 근거한 엘리트 의식을 지양해야 할 대학생들이 자신들 스스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향유하고 강화하는 것은 대학인으로서의 의식의 부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90년대 이후 대학은 그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사회/문화의 변혁주체로서의 성격, 고유의 아카데미즘적 성격을 벗어 던졌다. 더 이상 소비·향락적 대중문화와 대학문화의 경계는 없어졌다. 그저 대학은 대중문화의 소비집단으로 위치지어 지고, 대학생은 문화의 생산자가 아닌 대학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업적 소비적 분위기를 쫓는 존재이다.

이러한 변화가 대학생들에게 대학주변 지역에 대한 일종의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그것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기차놀이이다. 해마다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차놀이 때문에 신촌 혹은 안암 일대 상가는 진통을 겪는다. 우리가 주변 상권을 이용하니 우리 축제 때 음식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대학 주변 상권은 대학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아우른다는 사실과 대학 상권은 그 자체적 공간이지 대학 문화의 연장선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한 이기적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소비적 문화가 팽배한 대학가에서 대학생은 자신의 문화를 생산하지 못하고 향락적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수동적 존재일 뿐이다. 특히, 신촌은 연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대학가가 아님에도 연고제때가 되면 그 일대의 도로와 상가는 연대생과 고대생에 의해 점거되고 폭력에 그대로 노출된다. 가게에 가서 막무가내로 술과 음식을 요구하고, 행패를 부리고 때로는 가게에서 학교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이러한 행태는 폭력 그 자체이다. 연고제는 엘리트 집단의식에 바탕하여 왜곡된 주인의식을 배태하며 그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폭력적 형태마저 정당화하고 있다.

#### 4. 그렇다면 우리는 —안티 연고전 연세대 모임(가)을 제안합니다.

소실점으로 치달아가는 대학 내의 자치, 공동체 문화들은 앞서 서술한 문화 소비자로 전락한 대학인의 위상, 집단주의, 학벌에서 기인한 엘리트 의식, 남성중심적 구조, 장애차별적 구조와 맞물려서 존중되어야 할 가치들을 고사시키는 살육제—카니발과 다름없는 현실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현재 연고제 속에 드러나는 학벌과 엘리트 의식, 집단주의에서 기인한 여성배제와 비장애인 중심성들을 폭로해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지향하는 가치들을 발언하고 구성해 내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위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입지에서 연고전을 바라보면서 여성, 교육, 환경, 장애에 대한 다면적인 입장을 제출하고 공동의 흐름을 만들어 내었으면 합니다. 지금의 대학 문화의 문제점에서부터 시작한 흐름들이 단지 연고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으로서 자치와 공존으로서 구성된 새로운 축제의 공간을 구성하면서 안티 연고제를 축제를 위한 서막으로서 긴 호흡으로 시작합니다.

#### >>안티 연고전 연세 모임 이렇게 진행된다.

9월에 있을 연고제를 자치와 공존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모든 연세인과 함께 안티 연고제 연세 모임은 진행됩니다.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티 연고전의 문제의식을 알려내고 강연회 혹은 토론회, 릴레이 선언, 문화제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기획되지 않았습니다. 뜻을 함께 하는 단위나 개인과 함께 앞으로의 구체 계획을 논의하면서 강연회 혹은 토론회, 릴레이 선언, 문화제 등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공감하는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첫모임은 9월 2일 오후 6시에 진행됩니다. 서로의 입장과 계획을 가지고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